

## “반갑다 비야” 분주한 들녘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기다리던 단비가 내린 6일. 계속된 가뭄을 해소하기엔 부족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담양 고서면의 한 농민이 자신의 논에서 모내기 후 뜬모 자리에 모를 보충해 심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광주가 힘 모아야

노사민정 대타협 ... 인건비 줄여 대기업 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  
정부서 정책 도입키로 ... 광주시, 특별법 추진 ‘성공 모델’ 만들기

노사상생형 모델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사·민·정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노사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사업비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구하는 용역비 성격이다. 광주시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

운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예산으로 반영됐다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광주형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과제인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은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합의하게 원만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로 꼽힌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노동권’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시각이 상당하다.

또 노사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성공 모델이

아직 광주에서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특별법(가칭) ‘일자리 나눔 확산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모델 등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이 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펼쳐질 빛그린 국가산단의 노사상생 산업단지 특구 지정을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경우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이달 중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컨트롤타워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해 지역의 사

회통합을 본격 추진함과, 전국 차원의 합의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치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련한 실무 논의가 진행중이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의 시의적절성과 통화를 통해 광주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월항쟁 30주년

<중> 다시 만난 6월의 사람들 ▶6면

청년, 청년을 말하다 - 황민형 ▶18면

우천 연기 ... 호랑이 꽃말 휴식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국가비전 키워드 ‘정의·통합’

국정기획위, 국정목표 보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 키워드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가다듬어 5년간의 국가운영 로드맵을 완성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1차로 검토한 국가비전 및 향후 국정목표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 국가비전에 ‘정의’와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전은 이렇게 정해졌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 그 아래에 있는 다섯 개의 기둥(5대 목표)을 논의하고 있

다”며 “결국은 각 목표에 맞는 5개년 계획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국가비전의 표어는 ‘정의로운 국가, 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초안부터 ‘정의로운 국가’와 ‘국민통합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됐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의와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것으로 이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이후 국정목표나 전략, 실천과제 등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광온 대변인은 “책에 비유하면 목차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런 큰 틀을 바탕으로 분과별 토의를 해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민주주의 전당 광주·마산 두곳에”

지선 신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밝혀

제6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知諱·72)은 “민주화운동기념관(민주주의전당)을 광주, 마산 2곳에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지선신임은 정부로부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난 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념관 건립사업이 부지선정, 정치공학 등 이유로 10년 이상 장기 표류할 바에 4·19, 5·18의 고장 마산과 광주 2곳에 세우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념관까지 서울에 둘 필요는 없지않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은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 달성을 위한 첫째 사업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으로 규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대선 때마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광주유치, 박근혜 후보 마산유치 등 대선공약으로 등장했다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3년 11월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

체성을 가진 서울, 광주, 마산(창원)에 삼각 축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3도시 간 체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이 ‘이사회 결정’이라며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유지에 나섰던 도시들의 반발은 산 이후 표류 상태다.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선 불교계 대표적 인사답게 지선신임은 이사장 임명 등 기념사업회 운영 밑그림은 물론 종교인 과제, 청산과 협치·상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스님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이요, 우리 사회 곳곳에 맺힌 한 풀어주기 전 협치와 상생은 어렵지 않으나”면서 청산 후 협치·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제에 대해선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이제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이사진 임명 등 기념사업회 운영과 관련해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규정대로 이사진 임명 제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민주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hk@kwangju.co.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담™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